

지역 소식통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정읍시, 전문성 강화 교육

정읍시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옥정호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정읍시협의회 김종길 회장이 강사로 나서 옥정호 생성과정과 이용현황, 수돗물 원수 공급과정, 옥정호 수질 오염원 발생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킴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된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불법 낚시·어로행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절 처리 등 수질 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활동도 전개하며 옥정호 수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상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제7기 마지막 임의회의

부안군 상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일동)는 지난 5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 만료에 따라 마지막 임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년 동안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상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재개강 추진에 대한 안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철저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재개강하기로 결정했다.

채연길 상서면장은 "지난 2년 동안 상서면 발전과 주민화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 생동하는 상서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속도

어르신 눈높이 맞춤형 설계 내달게 완료, 기반조성 공사 올 12월 착수

고창군이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신개념 고령자복지주택의 건축설계와 기반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시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최종 승인에 따라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76억원(국비 128억원, 지방비(고창군) 44억원이, LH 8억원)이 투입되며 8평형 54세대, 10평형 7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어

르신들의 주거공간에는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축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고창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도로개설, 상·하수도관 설치 등 기반조성을 담당하고 사업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건축설계는 (주)아인디자인건축사사무소(소장 김영수)에서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거주성을 고려해 어르신 맞춤형 사회복지시설

설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달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부지 외부의 기반조성 설계는 (유)승우엔지니어링(이사 서필중)에서 맡아 올해 12월이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고창군청 황한규 사회복지과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이 건설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세시대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고창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마와 저온의 영향으로 벼 잎도열병과 고추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시, 벼 잎도열병·고추 탄저병 '발생주의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마와 저온의 영향으로 벼 잎도열병과 고추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농작물이 연약해져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벼 잎도열병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고, 수확을 앞둔 고추도 탄저병과 역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벼 잎도열병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는 논에서 비가 자주 오거나 흐린 날씨에 높은 습도와 저온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병이다. 방제 적기를 놓치면

벼 포기가 썩으며 주저앉고 생산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생 초기부터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논으로 찬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고추 탄저병은 역병과 더불어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철저하고 세심한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하며 빗물에 의해 전파되므로 잦은 강우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적용 방제로 예방적 방제를 해야 한다. 또, 비가 온 뒤에도 약제를 살포해 주어야 하며, 방제가 확인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높을고창' 캐릭터 이모티콘 16종 무료 배포

'복자씨' '멜롱이' '고수박씨' 등... '명품 농산물' 메시지 전달

고창군이 오는 7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복자씨'·'멜롱이'·'고수박씨' 16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모티콘 무료배포는 맛있는 과일 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 고창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이란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재치있게 전달해 고창 농산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높을고창'의 홍보용 캐릭터로, 각각 복분자와 멜론, 수박을 의인화했다. 밝은 모습으로 전국민에게 에너지와 행복을 전하는 명품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고창군

청'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기존 친구를 포함해 2인명에게 선착순 제공돼 다운로드 시점부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비대면 시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고창농산물 판로개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높을고창' 브랜드는 고창군이 개발한 프리미엄 농특산물 브랜드다. '고당도·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의미하며 수박을 시작으로 멜론, 친환경 쌀 등이 공동산별·품질관리 등을 통



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책마을 해리에 예술공방 활짝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 해결·지역 공동체 회복 꾀해

고창군 해리면 월봉마을 책마을해리 안에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을 주제로 한 마을 예술공방이 만들어졌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개인주의 심화, 노인문제,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다위 거점공간 조성 사업이다.

고창군은 행안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돼 해리 책마을 안에 마을 예술공방을 마련했다. 마을 예술공방은 지역 마을기업 나성에 가면 이 고

창군과 민간위탁을 체결해 운영된다. 공방에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출판공방, 예술공방,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움직임은 예술공방, 책학교, 인문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출판공방은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공방이다. 스스로 종이를 만들고 염색·제책 등을 하면서 책과 한층 친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으로 책 만들기는 자신감·창의력·사고력을 키우면서 최고의 문화체험이 되고 있다.

고창군은 해리 책마을이 지난 인적·물적자원을 고창지역 타 공동체나 조직과 연계해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청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마을공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공동체성 회복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작가가 되어 책을 만드는 로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생계곤란가구 긴급 복지지원

정읍시, 다음 달 25일까지 선제적 발굴... 사각지대 최소화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취약가구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발굴 대상은 주거환경·건강 측면의 위험이 우려되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위탁 세대, 한부모 가족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시는 이번엔 발굴한 취약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과 상담, 지원·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전·단수와 사회보험료 체납, 병·의원 과다이용자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복지

시설, 기관 단체와 협조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교차 제공하게 된다.

한편, 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정읍을 위해 엔젤복지통신원을 구축해 위기가구를 발굴해오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위기 대상으로 통보된 명단 외에 위기상황이 예측되는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선풍기 지원 등 여름나기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위기가구의 보호·돌봄·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여름철 위기 가구 발굴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을 한명도 놓치지 않고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읍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